

정수영 개인전

《I want to be invited, but I don't want to attend.》

*Introvert, 2024, acrylic on linen, 100x100cm*

전시제목 : 정수영 개인전 《I want to be invited, but I don't want to attend.》

전시기간 : 2025년 5월 28일(수) – 2025년 6월 28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름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30여 점

○ 담 당 이주연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50528-20250628_정수영, I want to be invited, but I don't want to attend.

1. 전시 개요

학교재는 5월 28일(수)부터 6월 28일(토)까지 정수영(b. 1987, 서울) 개인전 《I want to be invited, but I don't want to attend.》을 연다. 학교재에서 선보이는 첫 개인전이다. 신작인 '팬트리(Pantry)' 시리즈를 중심으로 회화 작품 30여 점이 출품된다.

정수영은 누군가의 일상적 공간을 그린다. 그의 작품 속 공간에는 다양한 사물과 상황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 공간은 사물을 사용하는 이들의 내밀한 성향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들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결국, 특정한 공간을 그린다는 것은 개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동시에 하나의 집단을 형상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작가는 사물의 흔적과 현재성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이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미학적 담론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상황과 사물을 시각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한계를 탐구한다.

2. 전시 주제

정수영의 작업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순간들에서 출발한다. 말로 설명되기 어려운 감정이 특정 사물과 만나 불현듯 형태를 갖추는 순간이 작업의 실마리가 된다. 컵에 남은 물 자국, 먹다 남은 음식, 바닥에 놓인 옷가지 등 스쳐 지나갈 법한 장면들이 작가의 시선에 포착된다. 때로는 타인의 일상에서 발견된 풍경이 개인적 기억의 층위와 포개지며 화면 안으로 들어온다.

정수영은 이를 두고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찾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눈에 밟히는 사물이나 장면을 따라가는 방식에 가깝다. 그렇게 대상을 쫓다 보면 ‘왜 이것이 눈에 들어왔을까?’라는 질문이 남고, 그 질문이 그림의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하는 사물들은 그저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시간이 스며 있고, 기억이 층층이 쌓여 있다. 정서적 밀도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 사물은 단순한 오브제를 넘어 고유한 내력을 지닌 일종의 '초상'에 가까워진다. 정수영의 작업에서 사물은 정물화와 초상화의 경계 어디쯤 자리 잡는다. 작가는 특별한 연출 없이 사물이 지닌 고유의 분위기와 흔적을 존중하며,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추상적 감정이 구체적 사물과 만나는 순간에 주목한다. 감정이 현실을 딛고 형태를 얻는 찰나, 사물은 단순한 오브제를 넘어 기억과 감정의 초상으로 전환된다. 관객으로 하여금 익숙한 풍경 속에서도 감정의 잔상을 발견하게 한다.

사실에 가까운 재현을 통해 사물의 형태를 드러내고, 과도한 서술은 지양한다. 비워진 공간과 조형적 긴장을 통해 사물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은근히 암시할 뿐이다. 사물은 삶의 작은 장면을 전달하는 매개가 된다.

작가는 캔버스 대신 리넨을 화면으로 사용한다. 눈으로도 결이 느껴지는 리넨 천은 비어 있는 듯하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 않고,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모순적 감각을 담고 있다. 정수영은 이 거칠고 생경한 바탕 위에 사물을 남긴다. 작가는 여기에 '비움의 뜻'을 담았다. 화면이 가득 차지 않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다. 이러한 태도는 작품 전반에 일관되게 흐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팬트리 시리즈는 개인의 내밀한 시간을 포착함과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장면을 통해 보편적 현실의 단면을 비춘다. 팬트리는 주방이나 생활 공간 속에서 음식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보관하는 작은 저장실을 뜻한다. 본래는 주로 빵과 식재료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시작됐지만, 오늘날에는 조미료, 통조림, 주방 기구 등 다양한 물건들이 얹히고설켜 쌓이는 장소로 확장됐다. 무엇이, 어떻게 축적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의 흔적이 농축된 장소로서, 단순한 수납공간을 넘어 개인의 내밀한 욕망과 불안을 비추는 상징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작가에게 팬트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삶의 방식과 취향, 가치관, 감정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축적의 장소다. 은밀하지만 솔직한 사물들로 채워진 이곳은 타인의 삶을 엿보는 듯한 관찰의 시선을 제공한다. 동시에, 개인의 내밀한 세계를 보여주는 창역할을 한다. 닫힌 공간 속에 담긴 사물들을 드러냄으로써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팬트리 작업은 기존 'biographical object' 연작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팬트리에 등장하는 일부 오브제는 과거 'biographical object'에서 개별 오브제로 기록된 바 있으며, 반대로 팬트리 속 사물이 다시 독립된 오브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두 시리즈는 사물과 감정의 밀도를 따라 유기적으로 순환하고 확장되며, 서로의 맥락을 교차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그동안 'biographical object' 연작에서 인물의 존재는 철저히 배제됐으나, 이번 작업에서는 그 틀을 벗어나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에서 파생되는 감정의 밀도를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작가는 자신의 시선을 화면 속에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며, 사물과 맺는 거리를 새롭게 탐색한다. 이때 화자의 위치가 드러나는 순간, 사물은 단순한 오브제를 넘어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의미의 층위를 가진다. 이로써 작품은 더 이상 중립적인 관찰의 장면에 머무르지 않고, 사물과 시선이 맺는 긴장과 간극을 드러내는 장으로 확장된다.

3. 작품 소개



Introvert

2024

Acrylic on linen,
100x100cm



Not for posting

2024

Acrylic on linen
100x100cm



Pantry7

2025

Acrylic on linen
120x120cm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들인 <Introvert>, <Not for posting>, <Pantry7>은 탐색의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발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욕실 수전에 비친 반신욕 중인 작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리는 팬트리의 내부 등, 모두 1인칭 화자가 은밀하게 화면 안으로 침투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 장면들은 이전 작업에서 철저히 배제되던 주체의 존재를 서서히 불러들이며, 관람자에게 감정적 거리를 한층 더 밀착시키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도의 차원을 넘어, 관계의 심층부로 시선을 밀어 넣는 작업이다. 관람객은 작가의 시선이 닿는 지점에 동참하며 그 거리를 함께 체험하게 된다. 대부분 사적인 장면에서 출발하지만, 그 속의 사물들은 관람자에게도 낯설지 않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주할 법한 익숙한 것들이다.

작가는 이를 은유적 이미지로 재구성함으로써 관람자가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덧씌우고 감각적으로 맞닿는 순간을 유도한다. 나아가 사물과의 관계성 역시 새롭게 맺어지며,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

이번 전시는 정수영이 '비가시적 주체'에서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시선'으로 회화적 전환을 이룬 중대한 분기점이다. 사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탐색하는 지점으로 자리한다.

4. 작가 소개

정수영은 1987년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대 회화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은 후, 2018년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I want to be invited, but I don't want to attend.》(2025, 학교재, 서울), 《플레이 스테이션》(2023, 아뜰리에 아키, 서울), 《Self on the Shelf》(2023, 매드독스 갤러리, 런던, 영국), 《87년생 정수영》(2022, 도잉아트;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원 오디너리 데이》(2021,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파라미타》(2016, 갤러리도스, 서울)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주요 단체전으로 《하우스 오브 테이스트》(2024,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아시아나우》(2022, 파리, 프랑스), 《나와 나 사이 거리》(2022, 파워룸 아트 센터, 상하이, 중국), 《뱅가드》(2022, 아뜰리에 아키, 서울), 《추상:리얼리티》(2018, 사치 갤러리, 런던, 영국) 등이 있다.

5. 작가 약력

정수영

1987 서울 출생

학력

2018 영국 런던 왕립예술대학교 석사 졸업

2014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2012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 판화 전공 학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개인전

2025 I want to be invited, but I don't want to attend., 학교재, 서울

2023 플레이 스테이션, 아뜰리에 아키, 서울

Self on the Shelf, 매드독스 갤러리, 런던, 영국

2022 87년생 정수영, 도잉 아트, 서울;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2021 원 오디너리 데이,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2016 파라미타, 갤러리 도스, 서울

단체전

- 2024 일상적 사물, 서울옥션, 서울
하우스 오브 테이스트,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 2022 아시아나우, 파리, 프랑스
나와 나 사이 거리, 파워롱 아트 센터, 상하이, 중국
뱅가드, 아뜰리에 아키, 서울
- 2021 일루밍 2, 도잉아트, 서울
- 2020 허스토리, 매드독스 갤러리, 런던, 영국
K 아트 나우, 서울옥션, 서울
- 2018 추상: 리얼리티, 사치 갤러리, 런던, 영국
일루밍, 도잉아트, 서울
아트 프라이즈, 런던, 영국
솔로쇼, 학고재, 서울; 해담하우스, 서울
페인팅 나우, 힉스 아트 갤러리, 런던, 영국
RA 썸머전, 로얄아카데미, 런던, 영국
나비효과(4482), OXO 타워, 런던, 영국
- 2017 힉스 아트 어워드, 쿼츠 HQ, 런던, 영국
그리핀 아트 어워드, 그리핀 갤러리, 런던, 영국
힉스 아트 어워드, 힉스 아트 갤러리, 런던, 영국
써니 아트 어워드, 써니 아트, 런던, 영국
언더 더 씨, 크립트 갤러리, 런던, 영국
맛있게 드세요, 스페이스 갤러리, 런던, 영국
- 2016 워크 인 프로그래스, 색클러, 런던, 영국

레지던시

- 2019 엘리펀트 랩 레지던시, 엘리펀트 랩, 런던, 영국
레디컬 레지던시, 유닛 1 갤러리 워크숍, 런던, 영국